Symphony No. 4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작곡가: Alfred Schnittke (1934–1998)
장르: 독창 ·합창 ·실내악 또는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곡
작곡 시기: 1984년으로 분류됨 (당대 일부 자료는 1983년으로 표기)
작품 전체 초연: 1984년 4월 12일, 모스크바 음악원 대강당. Dmitri Kitaenko 지휘, Version II
두 편성: Version I(네 독창 ·실내악 편성)와 Version II(두 독창 ·혼성 합창 ·확대 현악 편성)

Alfred Schnittke의 Symphony No. 4는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루터교 ·유대교 전례를 연상시키는 네 음정
영역을 한 호흡의 교향곡 안에 겹쳐 놓는다. 단악장 전체는 느린 Andante에서 시작해 일곱 개의 빠르기
표지를 통과하고 다시 처음의 무게로 돌아온다. 네 독창과 현악 오중주 ·세 건반악기를 증폭하는 Version I, 두 독창과 혼성 합창 ·확대 현악군을 쓰는 Version II는 같은 연속 형식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현한다. Schnittke 는 열다섯 신비의 묵주기도를 작곡의 공식으로 참고했지만 , 청자가 각 변주를 특정 성경 장면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Wikipedia: Symphony No. 4 (Schnittke)

출판 정보

현행 Boosey & Hawkes/Sikorski와 Schnittke 연구기관은 작품을 1984년으로 분류하고, Le Chant du Monde의 위촉과 약 41분의 길이를 제시한다. 1983년이라는 연도는 당대 음반 해설과 일부 연구에 남아 있으나, 자필 총보의 종지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1983–84년으로 합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직접 확인된 인쇄 총보는 Paris, Le Chant du Monde의 1987년판 계열이며, 현행 Schott 총보는 43분으로 안내한다.

작품 전체의 첫 공연은 1984년 4월 12일 모스크바 음악원 대강당에서 열린 Version II였다. Dmitri Kitaenko 가 지휘하고 Moscow Philharmonic Academic Symphony Orchestra, State Chamber Choir, 카운터테너 Erik Kurmangaliyev, 테너 Alexei Martynov, 피아니스트 Vladimir Krainev가 참여했다. 원래의 실내악
구상에 가까운 Version I은 1986년 3월 16일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
연구기관과 종합 목록은 Alexander Lazarev를 지휘자로 적지만, Boosey & Hawkes의 개별 페이지에는
Dmitry Kitayenko가 적혀 있어 두 자료의 충돌을 숨기지 않는다. 1986년 공연을 작품 전체의 세계
초연이라고 부르는 표기는 이 두 사건을 혼동한 것이다.

소요 시간

공식 목록과 IRCAM은 약 41분, Schott는 43분, 일부 출판사 페이지는 45분으로 안내한다. 확인된 녹음은 BIS 의 약 41분대부터 Melodiya의 46분 12초까지 놓인다. 이 폭은 판본 ·템포 ·마스터링의 차이를 포함하므로 , 변주마다 고정된 분 단위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음반에서 일곱 트랙으로 나눈 경우에도 이는 빠르기 표지를 찾기 위한 색인이다.

편성

두 판본은 현악의 규모와 성악 집단을 바꾸지만, 작품이 요구하는 음정 ·음색 원리는 공유한다.

Version I: 실내악판 : 소프라노, 콘트랄토, 테너, 베이스 독창; Flute(알토 플루트 겸함), Oboe, Clarinet, Bassoon, Horn, Trumpet, Trombone 각 1; 네 명의 타악 연주자가 맡는 공 (Gong) 6개, Tam-tam, Tubular bells, Glockenspiel, Vibraphone; Celesta, Piano, Harpsichord;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각 1.
Version II: 관현악판 : 콘트랄토 또는 카운터테너 , 테너, 혼성 합창; Version I과 같은 목관 ·금관 ·
타악기 ·건반 집단; 1인 1파트의 오중주가 아닌 전체 현악군.
텍스트: 현행 출판사 메타데이터는 성악을 Vocalise로 표기한다. 초기 공연과 첫 녹음은 무가사
발성이었고 , 후대의 일부 공연 ·녹음에서 라틴어 또는 러시아 정교회형 성모송을 사용했다.

Version I의 독창 ·현악 오중주 ·세 건반악기는 증폭을 전제로 한다. 실제 마이크 수와 스피커 배치까지 고정된 표준은 없으며, Version II에 같은 기술 조건을 자동으로 확대할 근거도 없다. 공식 편성에는 팀파니가 없다는 점도 기존 요약과 다르다.

단일 악장의 시간과 빠르기

총보의 내부 빠르기는 Andante poco pesante, Moderato, Molto pesante, Moderato, Vivo, Moderato, Andante poco pesante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것은 일곱 악장이 아니라 한 악장 안에서 무게와 속도가
바뀌는 연속 지시다. 처음의 정적인 호흡이 갑자기 빠른 운동으로 깨어나고, 다시 무거운 정지와 성악의 긴 선율을 통과한 뒤 마지막에 출발점의 무게를 회복한다.

연구자들은 이 흐름을 서로 다르게 센다. Radchenko는 서주와 코다를 제외한 15변주 모델을 제안하고, Chandos 해설과 여러 청취 안내는 22변주를 말한다. Gavin Dixon은 앞뒤 틀을 포함한 22개 글자 구간과 24 개 형식 단위를 분석한다. 이 숫자는 같은 악보를 세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지, 어느 하나를 작곡가가 인쇄한 공식 악장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네 전례 영역과 비인용의 양식화

Schnittke는 1984년 글과 1988년 인터뷰에서 가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 회당창을 함께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네 전통의 실제 성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존재했던 듯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억양과 음정 체계를 재창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작품에서 들리는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 한 곡 ’ 이나 ‘루터교 코랄 한 곡 ’의 인용 목록이 아니라, 그 전통을 기억하게 하는 주제들이다 .

네 주제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네 음계라기보다 연결된 음정 영역으로 움직인다. 가톨릭 ·정교회 쪽은
온음계적인 4음군과 장 ·단 성격의 대비를 보이고, 루터교 쪽은 두 3음군이 이어지는 6음 고리, 회당창을
연상시키는 영역은 반음 관계의 3음군으로 설명된다. 세부 간격에 관한 연구자 표기는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작품 전체를 단일 음렬로 환원하지 않는다.

묵주기도의 공식과 열린 청취

Schnittke는 Ivashkin과의 대화에서 열다섯 신비, 곧 환희 ·고통 ·영광의 세 묶음이 각각 다섯 사건으로
이루어진 묵주기도에서 작품의 공식을 얻었다고 말했다. Radchenko는 세 변주 주기를 이 구조와 연결해 읽고 , 세 건반악기의 변주 카논과 코다의 네 주제 결합을 그 형식의 중심으로 본다. 그러나 작곡가는 1988년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청자의 반응을 지배할 필요는 없으며, 음악은 말의 설명 없이도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열다섯 신비를 15개 또는 22개의 변주에 일대일로 붙여 장면 표제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종교 프로그램은 작곡가가 선택한 설계의 배경이고, 청취자는 반복 ·음색 ·성악의 진입 ·코다의 대위가 만드는
움직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

세 변주 주기와 성악의 진입

작곡가의 설명과 Radchenko의 분석에서 첫 주기는 현악에서 시작한 재료가 목관 ·건반 ·금관을 통과한 뒤 테너 독창으로 닫힌다. 둘째 주기는 루터교풍으로 들리는 음정 영역과 피아노 변주를 거쳐 콘트랄토 또는
카운터테너의 개별적인 선으로 넘어간다. 셋째 주기에서는 세 건반악기의 모방이 더 뚜렷해지고 , 코다에서 네 주제와 성악이 한꺼번에 겹친다.

이 배치는 오페라처럼 인물이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아니다. 초기 무가사 발성에서 독창은 전례적 억양의
고립된 선으로 기능하며, 합창은 뒤늦게 공동체의 층위를 만든다. 후대에 라틴어 또는 러시아어 성모송을 넣은 공연에서는 말의 의미가 더해지지만 , 그것이 모든 판본의 원래 텍스트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코다와 음정 공간

Schnittke는 작품 대부분을 ‘휘어진 음정 공간 ’이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음역에서 같은 단계가 달라져 감 8도 · 증 8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코다에서 네 주제가 결합할 때 완전 8도와 온음계가 비로소 안정적으로
드러난다는 그의 해설은 최근 음정 연구와도 연결된다. 다만 이 결말을 완전한 화해나 교리적 통일의 선언으로 고정하면, 작곡가가 말한 양식화와 열린 청취의 태도를 좁히게 된다. 코다의 음악적 사실은 분리된 음정 영역이 잠시 같은 수직 ·수평 관계로 포개진다는 데 있고, 그 의미는 공연과 청자에 따라 달리 읽힐 수 있다.

초연 ·공연에서 드러난 긴장

1984년 Version II 초연은 확대된 현악군과 혼성 합창으로 작품의 외적 공간을 크게 만들었다. 1986년 Version I 첫 공연은 네 독창, 현악 오중주와 세 건반악기의 증폭을 통해 훨씬 밀착된 질감을 시험했다. 두 편성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미완성 대체물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연속 형식을 서로 다른 음향 거리에서

실현하는 공인된 안이다.

1988년 Boston 공연에서 Andrew Porter는 Alexander Lazarev, Bolshoi Theatre의 독주자 앙상블, 피아니스트 Vasily Lobanov, 테너 Arkady Pruzhansky의 연주를 들었지만 45분의 작품을 지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1989년 Los Angeles Times의 Martin Bernheimer는 Oliver Knussen과 New Music Group, 피아니스트 Zita Carno, 네 독창의 정밀한 실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작품의 제스처가 과잉되고 미묘하지 않다는 양가적 판단을 남겼다. 같은 작품이 공간 ·증폭 ·연주자의 균형에 따라 크게 다르게 들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

주요 레코딩

Gennady Rozhdestvensky·USSR Ministry of Culture Symphony Orchestra (1986, Melodiya): Erik Kurmangaliyev, Nikolai Dumtsev, Valery Polyansky의 합창단, Viktoria Postnikova가 참여한 Version II 계열로 약 46분 12초다. 초기 무가사 전승과 러시아 연주 전통의
밀도를 살피는 자료다. Melodiya 음반 서지
Okko Kamu·Stockholm Sinfonietta (1990, BIS-CD-497): Uppsala Academic Chamber Choir와 Mikael Bellini·Stefan Parkman이 참여했으며 , 원반 표기는 약 41분 38초다. BIS
북클릿에 실린 1988년 작곡가 인터뷰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BIS 음반 정보
Valery Polyansky·Russian State Symphony Orchestra (1994/1995, Chandos CHAN 9463): Yaroslav Zdorov·Dmitri Pianov, Russian State Symphonic Cappella, 세 건반악기가 참여하며 약 45분 16초다. Andrew Clements는 22변주의 장기 진행과 독창 ·합창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 녹음연도는 Chandos 자료 안에서 1994와 1995가 엇갈린다. Chandos 음반 페이지, BBC Music Magazine 리뷰
Alexander Lazarev·Bolshoi Theatre 독주자 앙상블 (1988 Boston 공연): Andrew Porter의 동시대 리뷰와 출연 기록을 통해 Version I 계열의 증폭 실연과 45분의 실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The New Yorker 리뷰

주요 자료

Boosey & Hawkes/Sikorski 작품 목록
Alfred Schnittke Institute 작품 목록
Boosey & Hawkes Version I
Boosey & Hawkes Version II
Schott 현행 총보
IRCAM Version I·II 자료, Version II Schnittke, 교향곡 4번 초연에 관한 1984년 글 1988년 작곡가 인터뷰가 실린 BIS 북클릿 Martin Bernheimer, Los Angeles Times 리뷰